



해외양계업은 지금...

일본

닭다리 수입 증가

일본에서는 닭가슴살 가격이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육계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2년 1월의 닭가슴살은 kg당 404엔에 거래된 반면 다릿살은 kg당 654엔에 거래되었다. '86년 가슴육과 다릿살의 가격 분리제를 실시한 이후 그간 kg당 17엔의 차이를 보여왔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벌어져 '91년에는 kg당 157엔의 차이를 보이다 금년에는 252엔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가격분리제의 도입으로 가슴육의 소비를 위축시켰고, 닭다리를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수입닭고기가 미국이나 태국, 중국에서 수입이 되어 더욱 가슴육의 소비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자 닭다리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던 업자들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닭다리 수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러시아

양계산물 생산 감소

러시아는 축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2년 초에 육계 21%, 계란 8%가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개방화에 의해 소상인 체제가 사라지면서 생산농가들은 루불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정부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각 지역에서 물물교환을 하거나 자체소비만 생산하고 있는데서 생산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지아

육계 생산량 증가

말레이지아는 '91년 말부터 육계생산이 과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지아내의 육종회사인 P.C.P사는 종계생산을 위해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종계장을 늘리고 있는데 홍콩의 C.P와 싱가폴의 Chia Tai사와도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

해외 양계업은 지금...

-편집부-



다.

P.C.P사는 탐핀지역에 약 50여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간 1백80만수의 종계를 생산하게 되는데 '93년1월부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지아의 연간 P.S판매량은 2천5백만수에 이르고 있는데 Pertonian C.P사가 이중 15%의 P.S 시장을 점하고 있어 Leong Hup Holdings의 30% 시장 점유율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다.

파키스탄

질병 피해 급증

파키스탄의 양계협회는 정부에 양계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주 내용은 소득세의 면제, 양계사료의 수입시와 포대사료의 사용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양계산물은 싼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농업부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등한시 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질병이 급증하여 육계·채란계, 할 것 없이 폐사율이 30~70%까지

육박하고 있어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WPSA 회원 가입

인도네시아는 지난 수라바야에 있는 에어랑가 대학에서 개최된 가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세계 가금학회(WPSA) 회원의 만장일치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우간다

양계산업 급성장

우간다 가금산업은 최근 급증하는 소비에 힘입어 '91년에는 '90년 보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약 40% 이상의 소득을 높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가금생산물 중에서는 계란보다 고기생산이 훨씬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3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소비가 증가하여 생산이 늘어나도 가격이 안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양계장, 부화장, 사료공장 등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